

### 청자 선물

도공들이 탐진 땅으로 속속 들어와 이 골 저 골에 가마를 지었다. 누구 가마이든 빛깔이 탐진의 산자락과 바다처럼 투명한 청자만 나오면 판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다. 장보고가 청해진에서 피살당한 이후 250여 년 만의 일이었다. 처음에는 큰 사찰에서 굵이 없는 청자사발(발우)과, 다기(茶器), 손잡이가 달린 청자정병을 구해 갔지만 나중에는 개경의 귀족들이 청자향로나 청자향아리에 만족하지 않고 청자벼루나 청자베개까지도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다. 다기 중에서 발효차 찻잔은 스님들의 밥그릇인 발우보다 반쯤 작았는데, 개경의 왕실 원찰에서 꾸준하게 주문이 오곤 했다. 특히 왕실에서는 꽃병처럼 생긴 풀이나 술을 담은 청자향아리들을 원했는데, 왕족들이 보기에도 송나라 청자 수준과 조금도 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지난 가을 가마에서 나온 청자사발과 접시들은 선종사찰인 무위사, 실상사, 태안사, 쌍봉사, 보림사 등에서 다 가져갔다. 선찰을 후원해 오던 개경 귀족들이 탐진 청자사발과 접시들을 각별하게 부탁했던 것이다.

따라서 탐진 청자는 미리 주문하지 않으면 구하기가 어려워졌다. 그러자 대신들은 자신의 집사를 탐진으로 내려 보내거나 직접 조운선 등을 타고 찾아왔다. 귀족의 가족이 직접 탐진을 찾는 경우는 마음에 드는 청자를 고르기 위해서였다. 10여 년 전에 작고한 최용의 부인 강릉김씨가 탐진으로 내려온 것도 귀한 청자를 구하고 싶어서였다.

강릉김씨의 막내딸이 예종16년(1121) 1월에 입궁하여 장신공주가 되었다가 인종7년(1129) 2월에 숙비(淑妃)로 봉해졌던바, 강릉김씨가 구매하는 청자들은 왕실에 보낼 선물들이었다.

강릉김씨의 남편이었던 최용은 종3품의 대경(大卿)에 이른 명문귀족 가문 인물로 유명했다. 증조부가 중서령 문헌공 최충이었고, 조부는 중서령 문화공 최유선이었으며 아버지는 평장사 양평공 최사제였던 것이다. 대구소 향리는 탐진에 내려와 이틀째 머물고 있는 작고한 최용의 부인 강릉김씨에게 극진하게 예를 갖추었다.

“여그 있는 청자덜은 대구소에서 행수도공덜이 품평을 마친 최상품이 그만요.”

“모두 서울로 보낼 것들이오?”

“예, 미산포에 청자운반선을 대기시켜놨그만요.”

강릉김씨가 이틀 뒤에야 대구소 도자기 창고에 들른 것은 극심한 배멀미 후유증 때문이었다. 이틀 동안 당전 객사에서 휴식을 취하자 겨우 몸이 가뿐해졌던 것이다. 선주문을 받아 개경으로 보낼 청자 기물들은 모두 미산포 도자기 창고에 있었다. 미산포 도자기 창고에는 접시와 사발, 합, 항아리, 꽃병 등이 선적을 기다리고 있었다. 짚이 든 나무상자에 최상급 청자항아리 등을 넣은 별도의 방법이 있었고, 접시나 사발, 발우들을 차곡차곡 쌓은 뒤 긴 막대기 네 개에다 새끼줄로 고정시킨 일반적인 방법이 있었다.

강릉김씨는 대구소 도자기 창고에 보관된 청자 기물들을 보고 놀랐다. 집사와 사병노비들은 강릉김씨가 걸음을 땔 때마다 한 걸음 뒤에서

움직였다. 강릉김씨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집사가 재빨리 다가와 귀를 기울였다.

“저게 무엇인가요?”

“마님, 밥그릇은 아닌 것 같습네다.”

강릉김씨의 말에 집사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러자 대구소 향리가 말했다.

“용도가 다양하그만요. 약을 넣으믄 약함이 되고라우, 패물을 넣어두믄 패물함이 되지라우. 또 부인덜 화장품을 넣으믄 화장품함이 되겠지라우.”

대구소 향리가 말하는 합(盒)은 무늬가 다양했다. 모란이나 학, 연꽃, 용, 구름 등이 음각되어 있었다. 합의 모양은 뚜껑과 몸체가 반원형과 원통형이 대부분이었다. 뿐만 아니라 뚜껑과 몸체를 세로 줄무늬 골로 정확하게 맞춘 단정한 합도 있었다. 강릉김씨는 앙증맞게 작은 합 앞에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숙비가 된 막내딸과 이미 시집간 딸들에게 주고 싶어서 그랬다. 대구소 향리가 말했다.

“여그 있는 청자합 중에서 최상품입니다요.”

“합은 몇 개까지 살 수 있나요?”

“여그 있는 합덜을 다 가져가실 수 있지라우.”

강릉김씨가 집사에게 눈앞에 있는 합을 다 사라고 눈짓으로 말했다. 대구소 향리가 또 말했다.

“다 둘러보시고 나서 말썸해도 상관없습니다요.”

대구소 향리가 이번에는 참외 여러 개를 세워놓은 것 같은 청자화병을 가리켰다. 그러나 강릉김씨는 청자참외모양화병보다는 귀엽게 생긴 벼루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벼루의 몸체는 개구리 같기도 하고 두꺼비처럼 보이기도 했다. 강릉김씨가 대구소 향리에게 물었다.

“개구리인가요? 두꺼비인가요?”

“예, 두꺼비 모양 벼루입니다요.”

“듣고 보니 두꺼비 같군요.”

강릉김씨가 웃으며 말했다. 집사도 웃고 뒤에 선 사병들도 웃음을 참았다. 그만큼 두꺼비의 생김새가 우스꽝스러웠다. 눈동자는 청록색 바탕에 짙은 갈색 철사점(鐵砂點)을 찍어 선명했고, 둥근 눈은 음각 선으로만 그려 툭 튀어나올 듯했다. 또한 입은 가는 선으로 물결무늬처럼 새기어 두툼한 입술을 연상시켰고, 앞발은 몸체에 바짝 붙여 웅크린 모습이었지만 곧 엉금엉금 기어갈 것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한편 두꺼비 등은 타원형으로 도톰도톰하게 파였는데, 먹물이 앞쪽으로 고이게끔 경사가 저 있었다.

“두꺼비라고 짐작하는 것은 몸에 찍은 꺼멓고 흐건 점덜이 있기 때문입니다요.”

두꺼비 몸에는 짙은 갈색과 하얀 점들이 찍혀 있었다. 대구소 향리는

두꺼비 몸에 돋은 용기들을 탐진 도공이 그렇게 표현했다고 말했다.

“이 그릇들은 뭔가요?”

굽 없는 사발들이 서너 개씩 포개진 채 긴 널빤지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예, 스님덜 발우입니다요. 바리때라고 부르기도 허그만요.”

대구소 향리는 강릉김씨에게 긴장을 풀고 편하게 설명했다. 강릉김씨 역시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망설이지 않고 물었다.

“서울 귀법사, 보제사에서 본 것이 기억납니다.”

귀법사는 광종이 창건한 국찰이었다. 제위보(濟危寶)를 설치하여 각종 법회와 재를 열었는데, 숙종 때의 주지는 숙종의 아들인 견성 적소(見性寂炤) 수좌(首座) 현응이었다. 강릉김씨는 귀법사에서 스님들이 공양할 때 발우를 보았던 것이다. 지금의 왕인 예종은 귀법사보다는 보제사를 더 좋아했다. 따라서 일찍이 최용과 강릉김씨도 보제사로 가서 왕을 친견하였는데, 그때 왕이 최용의 어린 막내딸을 처음 보았던 것이다. 당시 보제사 주지는 담진(曇眞)이었다. 담진은 화엄학의 대가로서 왕사(예종2년)에 이어 곧 국사(예종9년)가 되었던바 2년 뒤 왕은 직접 보제사로 행차해서 담진의 설법을 듣고 만발공양을 했던 것이다. 강릉김씨는 눈앞에 있는 발우들도 샀다.

“숙비가 된 딸이 스님들을 초대해 공양 올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요, 귀족 분들이 발우를 가져가는 것을 보든 벨궁에서도 스님덜께 공양을 올리는 모양입니다요.”

“여기 있는 이것뿐인가요?”

“아닙니다요. 미산포 창고에 발우뿐만 아니라 다른 청자덜이 가득 있지라우.”

“거기 청자들도 구경할 수 있나요?”

“있고 말고라우. 은제든지 안내허겠습니다요.”

“내일 아침에 가보고 싶군요.”

“예, 오늘은 객사에 머무시고 널도 지가 나서겠습니다요.”

대구소 향리 수하의 군사가 다가와 말했다.

“향리 나리, 당전에 찾자리가 준비돼 있그만요.”

“알았다. 손님을 모시고 갈랑께 몬자 가 있그라.”

당전은 대구소 앞에 있는 객사였다. 타지에서 귀한 손님이 오면 차와 술을 접대하는 대구소의 부속 건물이었다. 당전의 이름을 딴, 대부분 도공들이 사는 당전마을의 집들이 길쭉하게 들어서 있고, 당제를 지내는 푸조나무는 당전마을 앞 들녘에 있었다. 당전에서는 해묵은 고목인 푸조나무가 내려다보였다.

“찌그서 도공덜이 당제를 지내그만요.”

“당제라고요?”

“예, 찌그 푸조나무 아래서 도공덜이 정월 보름날에 제사를 지냅니다요.”

“당제는 도공들만 지내는가요?”

“전통이그만요. 원래는 도공덜이 봄 가실 가마에 불 때기 전, 길일을 간택해서 장군상을 모셔놓고 제사를 지냈는디 시방은 정월 보름날에 도공 선조님(陶祖) 위패를 써놓고 당제를 지내그만요.”

“장군상이라고요?”

“신라 때 월주청자 기술을 들여온 장보고 장군입니다요.”



청자사발로 발효차를 두 잔 마신 강릉김씨는 다시 청자들을 구경하고 싶다고 말했다

“차를 마셨더니 피로가 풀리는군요. 다시 청자들을 보고 싶군요.”

“예, 다시 안내허겠습니다요.”

대구소 창고 문들을 다시 열자, 킁킁했던 내부가 환하게 밝아졌다. 햇살이 일시에 밀물처럼 밀려들어 창고 안에 쌓인 청자 기물들을 반짝거리게 했다. 발우에 음각된 국화와 모란 무늬가 선명해졌다. 물론 무늬가 없는 발우도 많았다.

강릉김씨는 내심 초조했다. 최상급 청자들을 구입하여 하루라도 빨리

개경으로 보내고 싶기 때문이었다. 인종7년(1129)에 두 궁주(宮主)가 동시에 왕비가 됐는데, 상대에게 조금이라도 밀리고 싶지 않아서였다. 상대는 귀비(貴妃)가 된 진한공 왕유의 장녀였다. 왕족 왕유는 신분에서 작고한 최용보다 특별하므로 강릉김씨의 속마음은 고급 선물로 왕족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했다. 고급 선물이란 왕족 모두가 갖기를 원하는 탐진 청자였다.

강릉김씨는 대구소 도자기 창고 안을 둘러보며 왕의 가족에게 보낼 청자들을 골랐다. 청자항아리, 청자주병, 청자사발과 청자접시, 청자베개, 청자밥그릇, 청자국그릇 등은 물론이고, 왕실에서 사용할 청자벼루, 청자주전자, 청자화병, 청자향로를 집사에게 지시하여 사들이도록 했다.

“최 집사, 이것은 무슨 용도인가요?”

“예, 마님. 향로입네다.”

“이런 향로는 처음 보는 것 같소.”

“저도 처음 봄네다.”

향로의 둥근 몸체에는 세 개의 사자다리가 붙어 있고, 반반한 뚜껑 위에는 사자가 조각돼 있었다. 사자상은 거칠고 과격적이었다. 일(一)자로 벌어진 큰 입, 위로 향한 콧구멍 두 개, 송곳니 사이로 튀어나올 듯한 혀, 날카로운 눈매, 머리 뒤로 붙은 두 귀, 머리에 음각으로 새겨진 갈기, 목에는 방울이 달려 있으며, 세운 앞다리와 앞으로 내민 뒷다리 사이에 보주(寶珠)가 있고, 꼬리는 등 뒤에서 힘차게 치켜세워져 있는 것이었다.

몸체에 향을 넣고 태우면 사자 입으로 연기가 뿜어져 나올 터였다. 강릉김씨는 사자 입에서 연기가 내뿜어진다면 집안에 들어오려던 악귀도

물러설 것만 같았다. 그렇다면 부귀영화를 바라는 막내딸의 개인사물로 안성맞춤일 것 같았다. 사자형 뚜껑의 향로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이 가장 위엄이 있었다. 옆에도 사자형 뚜껑 향로가 있지만 사자가 웬지 유순하게 보였다. 그런데 그런 사자는 악귀를 쫓아내지 못할 듯했다.

“이 향로도 사고 싶군요.”

“죄송합니다요. 이 못생긴 사자 향로는 미리 주문헌 분이 있그만요.”

대구소 향리가 뒷머리를 긁적이며 말했다. 그러자 강릉김씨는 삼살개처럼 귀엽게 생긴 사자형 뚜껑 향로를 골랐다.

“그렇다면 이걸로 주세요.”

“원하시는 것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요.”

“괜찮아요. 손잡이가 달린 청자주병을 여러 개 샀으니 흡족해요.”

“그렇다면 참으로 다행입니다요.”

강릉김씨가 청자주병을 여러 개 산 것은 속셈이 있었다. 숙종과 예종의 왕자들을 염두에 두었던 것이다. 숙종은 모두 8명의 왕자를 두었는데, 징엄과 현응은 출가했으므로 청자주병이 필요 없었다. 또한 예종의 왕자 4명 중에 훗날 인종이 되는 해(楷)만 청자주병을 주려고 생각했다. 각로, 각관, 각예 등은 이미 출가를 해버렸기 때문이었다.

강릉김씨는 왕실의 공주들에게 줄 선물도 잊지 않았다. 집사가 가지고 온 은전을 헤아리며 걱정할 정도였다. 강릉의 부호 김상기의 딸인 강릉김씨는 마음에 든 청자 기물들을 가능한 한 많이 사려고 했던 것이다. 강릉김씨를 따라다니고 있던 집사가 에둘러 말했다.

“마님, 필요하신 것이 있다면 내일 고르셔도 되겠습니다.”

“모레는 떠나야 하니까, 내일은 탐진에 있는 절에 가서 쉬려고 오늘 이렇게 서두르는 것이요.”

“서울에 가실 때 배편은 취소했습니다.”

“잘 했어요. 여기 올 때 배멀미로 죽는 줄 알았소.”

강릉김씨는 개경에서 올 때 소형 조운선으로 왔지만 배멀미로 고생했기 때문에 상경할 때는 가마를 빌려 타고 갈 생각이었다. 데리고 온 사병들도 배멀미를 할 정도로 몇 군데 바다는 조류가 험악했던 것이다. 특히 손돌목과 안홍량, 울돌목을 지날 때는 격렬한 파도와 소용돌이치는 와류는 끔찍할 만큼 두려웠으므로 다시는 그곳을 지나고 싶지 않았다. 시일이 좀 걸리더라도 사병들을 가마꾼 삼아 가마를 타고 상경하는 것이 편할 듯했다.

“훈련을 받은 사병들도 멀미를 했으니 마님께서 오죽하셨겠습니까?”

멀미를 전혀 하지 않았던 집사는 배편이 빨라서 좋았지만 강릉김씨의 비위를 맞추며 말했다. 그때 대구소 향리가 끼어들었다.

“넬 절에서 폭 쉬실라든 오늘 미산포 창고 청자들까지 구경하시겠습니까요?”

“그게 좋겠소.”

집사가 미간을 약간 찌푸렸지만 강릉김씨는 막무가내였다. 탐진에 또 언제 오겠느냐는 심사였다.

“탐진에는 여러 절이 있습니다요. 그중에도 쉬시기에 가장 좋은 절은 아마도 쌍계사일 것입니다요. 쌍계사가 여그 당전에서 가장 가깝습니다요.”

대구소 향리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군사들이 여러 마리의 말을 대구소 마당에 대기시켰다. 강릉김씨가 대구소 창고를 나오자 말들이 앞발을 구르며 갈기를 흔들었다. 집사는 강릉김씨의 청자 구경 욕심에 혀를 내둘렀다. 청자 선물을 사러 오기는 했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던 것이다. 강릉김씨와 대구소 향리. 집사는 말을 탔고 대구소 군사와 강릉김씨의 사병들은 걸었다. 미산포마을은 조용했다. 말발굽 소리가 또각또각 마을 고샅길 너머로 울려 퍼졌다. 미산포 별장이 일행을 맞이했다. 대구소 향리가 다소 근엄하게 말했다.

“서울에서 오신 귀한 분이시네. 창고에 든 청자덜을 다 보여주소.”

“예, 향리 나리.”

미산포 도자기 창고는 포구 안쪽에 있었다. 대구소 도자기 창고보다 두 배쯤 규모가 컸다. 창고 앞에서 경계를 서고 있던 군사들이 별장의 손짓을 보고 창고 문을 열었다. 강릉김씨는 창고 안에 든 청자들을 보자마자 손으로 입을 가렸다. 숨이 막힐 정도였다. 대구소 도자기 창고는 수량 면에서 아무 것도 아니었다. 선적할 청자 수만 점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특히 눈에 띄는 기물은 청자발우들이었다. 대구소 향리가 말했다.

“서울로 켈로 많이 올라가는 청자는 발우지라우.”

“대구소 창고에서 보았던 발우와 똑같군요.”

“아닙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약간씩 다릅니다요.”



대구소 향리는 정성을 다해 안내했다. 과연, 발우는 조금씩 달랐다. 모란이나 국화 무늬를 음각으로 넣은 것도 있고, 무늬는 없지만 청자 빛깔이 최상급인 발우들이 있었다.

“무늬가 있는 발우는 대개 왕실이나 귀족덜에게 가고, 무늬를 새기지 않은 단순한 발우는 절로 갑니다요.”

발우는 3개, 혹은 4개가 포개져 한 묶음을 이루고 있었다. 발우 사이마다 짚을 넣고 네 개의 긴 막대기를 이용해 새끼줄로 단단히 동여맨 상태였다. 발우 사이에 짚을 넣은 까닭은 운송 과정에서 파손을 방지하고자 그런 것이 분명했다. 3개 묶음 39개, 4개 묶음 8개인 총 47개의 묶음이 창고 입구 한쪽에 놓여 있었다.

왕이 특별한 날에 스님들을 불러 궁에서 보시하는 공양을 만발공양이라고 불렀다. 또는 왕이 왕실원찰인 귀법사나 보제사로 행차해서 만발공양을 베풀기도 했다. 해마다 2월이면 연등회를 성대하게 개최하였고,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국가의 안녕을 빌기 위한 인왕도량이나 국왕의 생일을

축하하는 축수도량 등 특별한 날에 왕이 만발공양을 베푸는바, 이때 많은 발우를 이용했을 터인데 행사를 치를 때마다 발우가 더 필요했던 것이다.

만발공양을 다른 말로는 반승(飯僧)이라고 했다. 현종9년(1018)에는 현종이 전국의 10만 명의 스님에게 공양을 대규모로 올린 적이 있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는 왕이 궁궐로 초대할 때는 1만여 명, 지방에서는 2만여 명 규모였다. 이때 왕은 공양을 베푼 후 고승들에게는 발우를 선물로 주기도 했으므로 왕실이나 지방의 사찰에서 늘 대구소에 발우를 주문했던 것이다.

강릉김씨는 대구소 도자기 창고에서 이미 발우를 샀기 때문에 구경만 했다. 사실 미산포 도자기 창고에 있는 청자들은 모두 주인이 정해진 것들이었다. 도자기 묶음마다 목간이 매달려 있었다. 목간에 적힌 글자는 개경에서 수취할 주소와 이름들이었다.

‘탐진역재경대정인수(耽津亦在京隊正仁守)’

탐진에서 서울에 사는 대정(종9품의 하급군관) 인수에게 보냄.

‘在京安永戶付沙器一>’

서울에 사는 안영 집으로 청자 한 꾸러미를 보냄.

그런데 말단 군관에 불과한 대정 인수나 어떤 관직명도 붙지 않은 안영이 왕족과 귀족의 전유물인 청자를 구매했을 리는 없었다. 그들은 청자를 납품받아서 인도하는 개경의 중간상인이거나 왕족과 귀족의 집사 노릇을 하는 사람이라고 봐야 옳았다. 대구소 향리가 웃으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님께서 주문하신 물품에 매달 목간은 이미  
지가 최대경택상(崔大卿宅上)이라고 써놓았그만요.”

최대경택상(崔大卿宅上)이란 ‘최대경 택으로 보냅니다’란 뜻이었다. 이름  
뒤에 호(戶)라고 쓰지 않고 택상(宅上)이라고 한 것은 작고한 최용이 종3품의  
대경이란 높은 벼슬아치였기 때문이었다. <계속>